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투계 제2658호]

주체 110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음력 6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높이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8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4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으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진 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심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

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마련 해주시었다. 로작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며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며 량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단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었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

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었고 유훈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가 분열된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편밀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억울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 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에

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파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시실 불타는 일념을 안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식화, 그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도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즐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려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은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서도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어야만할것이다.
최광혁

사랑과 정, 이 지구상에 수직적인 인구가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이 말에는 아름다움과 화목, 희망이 깃들여있다.
하기에 누구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정에 대해 말한다. 수많은 소설이나 영화들 가운데 사랑과 정을 그리지 않은 작품이 없다.
사랑과 정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한 주제이다.
사랑과 정에 대한 성구, 속담, 명언, 격언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있는 공허한것으로 만들어버리고있다.
경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세계는 더욱 좁아졌으나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있으며 더욱 고독해지고있다는 목소리가 바로 한때 자본주의를 요란스럽게 찬양하던 언론들에서 점점 크게 울려나오고 있다.
인간은 무엇에 살며 인간

번 죽었다.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절규하며 경찰들에게 한을 터뜨렸다.
이렇듯 메마르고 차디찬 사회에 무슨 사랑이 있으며 정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것은 남조선사회에 돈밖에 모르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
하나 우리가 사는 이 땅 공화국은 어떠한가.

식처럼 키워주는가 하면 너의사가 화상으로 얼굴이 이그러진 로동자처녀에게 아픈다움을 되찾아주기 위해 8년간 무려 100여차례의 크고작은 수술을 한 감동깊은 이야기다 공화국에서만 들을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다.
연대인가 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썼다.

《나를 마치고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저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의 미담들을 체험하여 하나씩들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한때 이것이 일인가. 저 깊은 숲속 혹은 들만에 회귀할 하나씩들씩 숨어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마치 도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은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어나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서 피어난 꽃송이들은 저마다 갖가지 모양, 갖가지 빛깔을 띠고 저마다 그윽한

누구나 사랑으로 마듯하고 부드러우며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고있다.
사랑과 정이 흐르는 사회야말로 인간사회의 향기가 풍기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이고 가장 약동하며 강한 사회이다.
사랑과 정으로 뭉친 힘보다 강한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정, 사회와 집단에 대한 사랑과 정을 안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세계도처에서 반정부시위가 그칠새없이 일어나고 민족분쟁과 내전으로 인한 후파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속에 살지만 여기 공화국에서는 령도자와 뜻과 정을 나누며 화목한 한가정으로 살고있다.
말마친 새로 나온 노래 《그 정을 따르네》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널리 불리우고있는것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마음을 반영한 노래이기때문인것이다.
사랑과 정으로 뭉친 나라 그 누구도 해칠수도 허물수도 없다.
이 세상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사는 공화국인민들은 그 거대한 힘으로 어떤 시련과 난관도 물리치며 더 큰 행복과 번영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진, 평양진격과 같은 도발적인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실천과 같은 행동으로 옮겨지곤 하였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또 전쟁연습을 강행할 때마다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판에 박은 말이 뒤따르는데 그 언급이 《년례적》으로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수위는 해마다 날아오르고 있다.
바람따라 구름이 가고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그때문이다.
미친 전쟁연습바람이 어떤 구름을 몰아오고 종당에는 이 강토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참화로 들췌워졌는가는 너무도 명명백백하기때문이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 한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과 평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전쟁연습중단으로 평화번영의 문을 열어라 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에서 시대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수 있다.
남조선인민의 반전, 평화수호의 열기가 삼복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이유이다.
정 필

조선 특유의 재부 용 나라에 넘히는 사랑과 정

어느 한 철학자는 《사랑이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힘이고 무기》라고 하였고 또 어느 한 력사가 《인간사회가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것은 사랑》이라고 하였고.
이밖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 《사랑은 모든것을 이긴다》, 《사랑에는 귀천이 없다》, 《정이 있으면 꿈에도 보인다》, 《정들자 리별》 등 사랑과 정에 대한 많은 말들이 전해져온다.
옛사람들도 정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락도 있다 했거늘 인간생활을 돌아가는 기계와 대비하면 사랑과 정은 윤택유나 같다고 말할수 있다.
특히 우리 조선민족은 남달리 사랑과 정에 살고 사랑과 정에 살고있는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웃들간에 정을 주고받으며 화목하게 살아왔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는것을 미풍으로 여겨왔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집이 있으면 남너로스 모두 떨쳐나 버짙 한탄씩 들고 소박하게나마 사랑과 정을 표시하는것이 우리 선조들의 레의습습이었다.
늙은이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색깔도 냄새도 안 나는데 그것이 들면 화끈해지고 그것이 나오면 오싹해지며 그것이 부풀면 사족을 못쓰고 그것이 닳으면 사지가 풀리며 그것이 불으면 옛처럼 끈적이고 그것이 멀어지면 세상이 캄캄하니 정말 묘한것이》라는 《정러령》을 즐겨 부른 하였다.
이렇듯 조선민족은 류달리 정이 많은 민족이다.
사랑과 정, 이렇듯 아름답고 고귀한 부름이지만 오늘날 세계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사랑과 정을 예술작품에서나 볼수

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땅과 재부를 자부하는 나라들도 있고 성장과 힘을 떠드는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눈이 부시게 화려해도 알날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에게 귀중한것은 물질적부이기 전에 사랑과 정이며 제일 그리운것도 그것이 다. 인간은 해탈을 찾듯, 생명의 요구와도 같이 사랑과 정을 갈망한다.
하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니니 나라의 개인주의만이 만연하고있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돈과 리해사산으로 얽혀져있고 사교의 중심에 《나》, 즉 자기만이 있다.
한치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의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죽여 못가에 버리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아내를 목졸러죽이며 학생이 스승을 구타하고 폭행하고있다.
수년전 무지한 탐욕과 남의 목숨을 함참게 여기는 풍조가 빚어낸 《세월》호참사가 하여 수백명의 아이들이 한낱한시에 바다에 수장된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사회는 메마른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당시 《(세월) 호독법 시행령제기》를 요구하여 시위에 나선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이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막에 피를 토하며 짐승처럼 끌려가는 남조선생이 분노와 저주로 끓었다. 그때 유가족들은 서로의 목을 노끈으로 류고 《우리는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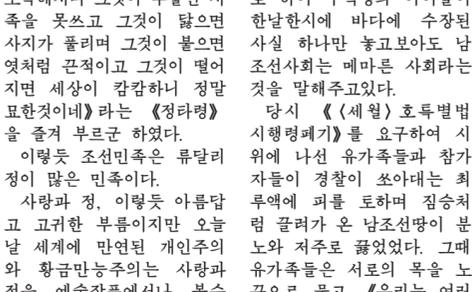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정에 살고있는 사회, 사랑과 정으로 뭉친 사회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딜 가나 사랑과 정이 있고 행복이 있다.
집단의 기쁨과 행복속에서 자신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는 사회, 전체 인민이 뜨거운 사랑과 의리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고난과 시련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나가는 화목하고 단란한 하나의 대가정이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피속에 깃속이 자리잡은지 오래다.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라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가 나온것도 벌써 오래전인 지난 세기 60년대이다.
앞 못 보는 청년에게 광명을 안겨주려고 자기 안해의 눈에 수술칼을 댄 안과 의사도 공화국에만 있고 물에 빠진 자기 자식보다 남의 집 아이를 먼저 건져주고 수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친자

《나를 마치고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저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의 미담들을 체험하여 하나씩들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한때 이것이 일인가. 저 깊은 숲속 혹은 들만에 회귀할 하나씩들씩 숨어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마치 도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은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어나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서 피어난 꽃송이들은 저마다 갖가지 모양, 갖가지 빛깔을 띠고 저마다 그윽한

없다. 이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조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특유의 귀중한 재부이다.
공화국이 사랑으로 견고한 사회로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화국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지도로념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이기때문이다.
공화국을 가리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사회라고 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고있는 화목한 대가정에서 사람들은



강선의 《처녀어머니》(2016년)



친혈육의 정을 안고 전쟁로병을 돌아보이준다.



한 로동자의 광명을 찾아온 의료원근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것은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투쟁 선언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편승한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후쿠오카현민집회가 7월 17일 규슈조선중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당국이 이번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을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법원당국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정부의 차별책동에 적극 편승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까뻐했다.
그들은 민족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은 곁방이든 혹독한 난관과 시련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전진과 비약의 보폭을 더 크게 내걸고있다.

황철과 김철, 강선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한치의 강재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가고있을 때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기상후조건에서도 기어이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오려는 일념을 안고 과학농사철을 세계에 일으키고있다.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과 원로, 자체의 국산화, 재자원을 실현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평양공업장 등 전국적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어렵고 힘들수록 자체의 힘과 자원, 기술에 의거하여 기어이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공화국인민이다. 자력갱생, 이는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난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 길만이 국가의 살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해 신념으로 굳게 간직해오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언젠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일군

자기 힘이 제일이다

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백철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돌이켜보면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발돋움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대상으로 무장고한 무장투쟁을 벌여야 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없었다면 조국해방이라는 역사적업무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족자주의 힘으로 찾은 조국을 자주로 더욱 빛내여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신조였다.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이 대국들의 지원이 없는 허리는 고사하고 손가락마저 퍼지 못할것이었다. 췌대는 사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면상을 자력갱생이라는 철화로 후려치며 세계의 하늘을 일렁이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던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믿을것은 우리 힘, 우리 인민밖에 없다. 제 힘으로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하시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가시었다.

그 자력갱생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이 있어 적대세력들이 곧 무너질것이고 우리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고 현대적 기술이 바닷물 나가며 도처에 회한한 선경들이 일떠서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질 수 있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의 기풍을 앞세우시고는 어느 한 실비를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하시며 자신께서는 중앙비서실로 현대적으로 건설할것도 기쁘시다고 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입병을 없애는데 대한 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계속 강조

공화국인민들을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들이 키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그이께서 길고잡으신 헌신의 자욱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주제104(2015)년 11월 새로 만든 지하철차의 시운전을 보아주시려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하철차의 성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지하철차의 성능을 높이고 현대적 기술이 바닷물 나가며 도처에 회한한 선경들이 일떠서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질 수 있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의 기풍을 앞세우시고는 어느 한 실비를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하시며 자신께서는 중앙비서실로 현대적으로 건설할것도 기쁘시다고 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입병을 없애는데 대한 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계속 강조

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나라

의 실비들을 들여다 조립이나 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는 의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의 가슴마다 자력갱생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과학기술 발전에서도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낸 실비들을 보실 때면 그이더 기쁘하시어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이 나날 공화국인민은 자력갱생이야말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를 앞서나가는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라는 것을 력사의 진리로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는 의연 적지 않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지만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다지고다져온 불굴의 정신력, 기적과 위훈창조의 영원한 무궁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있기에 두려울것도 못해볼것도 없는 공화국인민이다.

공화국인민은 앞으로도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이 땅위에 반드시 인민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정경순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며

평양시의 문수지구에는 현대적인 병원이 준비하게 일떠서었다. 바로 여기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무수히 찍혀져있다.

특히 류경안과 종합병원앞에 서면 몇 해전 그날의 잊지 못할 화폭들이 어리여온다.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주시려 마음쓰시며 흠뻑 날리는 병원건설장에 나오시어 하나의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새라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던 경애하는 그의 영상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하시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류경안과 종합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시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병원을 또다시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은 병원이든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꼭 하고 싶었던 일.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과 안정이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마련하는 일이 그의 가장 큰 소원으로 되고 하고 싶은 일의 전부로 되고있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사람의 몸값이 천냥이면 는

은 팔백냥이라고 일러왔다. 자식들모두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지닌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것을 간절한 마음속소원으로 안고계시었다.

그 소원이 풀린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치신 천만리고도 퍼로도 다 잊으신채 그이께서는 이렇듯 꼭 하고 싶은 일을 해 놓았다고 거듭 되뇌이시었다.

경애하는 그의 애민헌신의 숭고한 자욱은 새로 일떠선 류경안종합병원에도 새겨져있다.

두해전 10월 경성군 증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증평남새은실농장은 온실건설에서 하나의 혁명,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없는 병원이 되고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시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병원을 또다시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은 병원이든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꼭 하고 싶었던 일.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과 안정이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마련하는 일이 그의 가장 큰 소원으로 되고 하고 싶은 일의 전부로 되고있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사람의 몸값이 천냥이면 는

은 팔백냥이라고 일러왔다. 자식들모두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지닌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것을 간절한 마음속소원으로 안고계시었다.

그 소원이 풀린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치신 천만리고도 퍼로도 다 잊으신채 그이께서는 이렇듯 꼭 하고 싶은 일을 해 놓았다고 거듭 되뇌이시었다.

경애하는 그의 애민헌신의 숭고한 자욱은 새로 일떠선 류경안종합병원에도 새겨져있다.

두해전 10월 경성군 증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증평남새은실농장은 온실건설에서 하나의 혁명,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각 도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하나씩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없는 병원이 되고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시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병원을 또다시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은 병원이든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꼭 하고 싶었던 일.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과 안정이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마련하는 일이 그의 가장 큰 소원으로 되고 하고 싶은 일의 전부로 되고있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사람의 몸값이 천냥이면 는

본사기자 리경월

인민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이민위천의 리념을 높이 드시고

필생의 좌우명

주제81(1992)년 12월 어느 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군들이 참다운 인민의 행복이 되려면 혁명적근중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내가 회고록에 이민위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왔습니다. 혁명하는 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주제92(2003)년 10월 28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다. 나의 정치철학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정치에도 이민위천

을 사랑과 은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 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 이런 정치철학을 지니시었

을 사랑과 은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들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 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 이런 정치철학을 지니시었

깊이 새겨 주신 리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는 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 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는 것을 제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민위천에는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

기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사랑의 조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었다. 불변한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당풍을 확고히 견지함에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높이 드신 구호 《이민위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부 하시려는 경애하는 그의 숭고한 인민관이 맥동치고 있다.

본사기자



총련결성일의 보배주신 사랑의 서한

1995년 5월 25일은 총련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자본주의 일방면에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이 탄생을 때로부터 한 두해도 아닌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것은 진정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물론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경사가 아닐수 없

었다. 이 경사를 두고 누구보다 더 기뻐하고 마음쓰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총련결성일을 몇달 앞둔 어느날이었다. 총련사업에 대하여 로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지 않아 총련결성 40돐을 맞게 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예견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었다.

인군이 총련과 조국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에 대해 보고드리면서 이런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주시었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었다. 일군들의 소망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그이께서는 결성 40돐을 맞게 되는 총련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고계셨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주체적으로 전환하고 총련을 결성하도록 하시어 우리 시대 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더듬으시었다. 더구나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총련의 조직자이신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총련결성 40돐을 맞이하게 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절한 심정으로 깊이 헤아리시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군님이시기에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갈 애국의 신념을 굳게 다지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싶으신 마음은 각별히 뜨거우시었던 것이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서한을 보내주려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축전이 아니라 서한을 보내주시다니, 진정 가슴뜨거운 일이었다. 일군들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이를 부르짖었다. 돌이켜보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오래전부터 이날을 몹시도 고대하여왔다. 20여년전 9월 총련에서 제14차 전체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대회참가자들이 총련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을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알려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간절한 소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내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여느때처럼 수령님의 축하문을 보내도록 하시었던 것이다.

총련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군들을 정거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의 동무들은 총련결성 40돐을 그저 단순한 기념일로 보지 말고 해외교포운동 평등도시하는 과정에 이룩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총화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뜻깊은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총련결성 40돐과 관련한 사업들을 준비하는것이 좋겠다고 절절히 이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그해 5월 24일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해외교포운동 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새 세계 재일조선인운동을 활력있게 밀고나갈 때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지침이 담겨져있는 력사적서한인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를 받아안게 되었던 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서한에 접하여 감격과 기쁨에 울고웃으며 그이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였다.

사회주의문명의 새 경지를

보여주는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들이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다. 조선로동당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받들어 지닌해에 이어 울려퍼져 또다시 온천문명의 회한한 변천지를 찾은 로병들이 휴양의 전기간 귀빈으로 특별한 환대를 받았으셨다. 김이금이 뱀어온 외양을 따라결으며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부감하는 멋이던가. 놀라란 온정봉의 푸르른 숲속에 꾸러진 야외온천장과 금당화육조, 숲출입육조, 약육육조 등 수십개의 개별육조들로 이루어진 실내온천장에서 수도도 많고 약은양도 하는 이물데없는 쾌감이었다.

각종 운동기재와 문화오락기재들이 가득찬 종합복사소이며 온천탕의 별미를 느껴보는 탈입삼는 러 등 휴양지의 곳곳마다에서 천천천 편의봉사를 받으며 온천문명, 온천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는 로병들의 열정이 보이는 시종 웃음이 그칠 줄 모른다. 로병들을 위한 중앙예술단체 명배우들의 다채로운 공연무대도 펼쳐졌다. 예술인들과 어울

러 전사가요도 부르고 흥겨운 민요가락에 맞추어 춤도 추며 한껏 젊어진 모습을 저저마다 사진에 담는다. 휴양기간 봉사자들의 축복속에 생일상을 받는다. 아안은 로병들의 감격과 기쁨 또한 끝이 없다.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격정없는 새길수 없는 하나하나의 단면들, 이것이 어디서나 볼수 있는 려사로운 광경이었던가. 세계를 둘러보면 로병들을 위

해 일련의 사회특혜조치를

취해주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세세년년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온 위대한 전승세대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로병들모두가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승리전통의 창조자들로 떠받들리우고 국가와 사회의 커다란 관심과 혜택속에서, 오래오래 건강장수하기를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축복속에 여생을 값높이 즐기시어 보내는 려우아들이 있었

던가. 양덕평에 울려퍼진 웃음과 환희, 그것은 불변하는 로동당대에 복락을 누리며 로당익장하

도록 진함없는 열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불보다 뜨거운 인덕의 세계가 안아주고 고귀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자신께서는 전정로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년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인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마다 전정로병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

복받은 전쟁로병들

축하는것을 전통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2012년의 전승절경축행사로부터 전승 60돐 경축행사, 제4차 전국로병대회, 제5차 전국로병대회, 제6차 전국로병대회... 있을수 없는 그 나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축하연설도 해주시며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리의 귀중한 보배》, 《숭고한 정신과 넉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출중한 혁명

승고한 동지적의리와 대대같은 배려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시던 연설에서도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도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인물이며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로병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시어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며 모든분들께서 부디 건강장수하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로병대회참가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전국의 로병들에게 육친의 정이 깃든 따뜻한 시로품들과 귀한 보약들도 보내주시었다. 배우시는 사랑과 보살핌은 하늘 같은데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들을 보내도록 은혜로운 조치들련이 취해주시니 자애로운 어머니의 응시깊은 사랑에 목이 매여 전정로병들 누구나 고마움의 진정을 터치었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은정에 정령 몸뚱이를 모르겠습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이 사랑, 이 은정에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전정로병들에게 가장 긍지높은 삶을 주시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언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정로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시다.》 머리에는 백발을 없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끼어. 하지만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로당익장하며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전정로병들이다. 전승세대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고 인생의 모든 영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그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그 무엇으로 보답하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전화의 조국수호정신, 년대와 년대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온 그날의 그 열정, 그 기쁨을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기발처럼 물려줄 드높은 열의가 그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제시

1970년대에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민족이질화》를 내 놓고 통일의 불가능성과 로원성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이른바 《민족이질화론》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면서 체제의 통일이 없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반통일적 꾀이다.

오랜 기간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민족의 이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두 제도의 차이가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외세의 조종 밑에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벌여놓은 꾀를 다 놓아 놓으며 민족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던 그때 평양에서는 고

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 69(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천명하시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건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루는 것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지 않고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분렬된 두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자주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이 방안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것은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다.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 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

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공화국에서 1960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북남련방제안이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으로 가는 과도적 단계이었다면 1980년 10월에 발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창립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남련방제가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선거를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사회제도, 가진 북과 남의 두 지역과 두 정부를 련합한 하나의 통일 련방국가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면서 련방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제시하시었다.

정치강령, 경제강령, 군사강령, 문화강령 그리고 외교강령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현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은 련방국가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조선민족의 공동된 지향과 요구,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주고 있는 가장 애국에

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부시정강령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시정방침은 공화국 정부의 자주로선과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북과 남의 안락의 현실적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접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련이어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은 련방국가의 창립방안을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 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으로,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궤도》로, 《뜨거운 통일념원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면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였으며 해외동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련방국가창립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로목사가 올린 식전기도

198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열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에서는 본회의의 이름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일련의 대책적제안을 담은 편지를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속에는 당시 미국에 있던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교회련합회》 고문인 김성락 목사가 있었다.

그로 말하면 미국종교계에 일정한 영향력도 있고 미국정객들속에서도 친분이 넓었으며 당시 미국당국의 눈길을 받고 있던 유일한 조선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는 평양태생으로서 평양 숭실중학교에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류학을 하였으며 고이와서는 보통강일대에서 교회목사를 하였다. 일제가 강요하는 《창세기명》과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로스앤젤레스련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재미동포들의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다.

오래동안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반공의식에 물젖음대로 물젖어 있었다.

김성락목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는 고국몽을 밝히 애도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공화국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편지에 접한 그는 그 고향땅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김성락목사가 평양방문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주체 70(1981)년 7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를 접견해주시었다.

김성락목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당도했을 때 그이께서는 친히 현관문밖에까지 나오시어 기다리고 계시었다.

차에서 내린 목사는 황황히 그이께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리에서 오시느라 고 수고하셨다고, 정말 반갑다고 하시며 그를 따듯이 포옹해주시었다.

이이 김성락목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오랜 시간에 걸쳐 담화를 나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숭실중학교출신들 가운데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시며 우리 아버님께서도 평양숭실중학교출신들을 묶어세워가지고 애국활동을 시작하시었다고, 그때 평양숭실중학교출신들이 반일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조국을 통일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문제로 화제를 이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민족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대주의의 해독성과 지난 시기 공화국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시고 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사람들과 재미교포들에게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조선은 통일된 다음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할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어도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을것이며 남조선에 있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을것이라는 것도 잘 해설해주어야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친히 오찬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를 식탁으로 초청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먼저 선생이 식전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기도해 드리십시오.》

사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만 평생을 지켜온 신자의 도리를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기도드리는데 그만한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복되어 우리 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건강을 축원하며 기도를 드리었다.

후날 김성락목사는 미국에 돌아와 그리스로교신자들을 비롯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주석님의 고마운 말씀을 접하는 순간 오래동안 나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모든 위구심, 회의심은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충심으로 김일성주석님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황금숙

평화수호는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자못 중요한 문제로 나 서고 있다.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와 직결되어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평화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평화없이 나라의 통일과 번영, 민족의 생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

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외세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구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가 외세에 의해 침략한 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으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하였다라는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열의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최근 조선전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과 조국해방의 날인 8.15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원대, 《한국대학생진보련합》 등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반전, 평화수호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는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얼마전에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 중단》, 《미일남조선군사동맹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여기에 민족의 변영과 통일이 있다.

온 겨레는 단합된 힘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통일을 불러

민족어 연구와 더불어 빛나는 삶 (3)

주체 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뜻깊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 내각성원들을 발표하시면서 리극로선생을 무임소장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어제는 민족적광심과 애국적지조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민족인사로 불러주시더니 오늘은 새 조선건설을 위하여 해놓은 일도 없는 선생을 초대내각의 상으로까지 내세워주시니 어버이수령님!

진정 그이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리하면 그들모두를 사랑과 믿음의 한몸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그렇듯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이시였기에 남조선에 두고는 그의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격정하시며 그들을 빨리 데려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어 선생과 가족들이 평양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리극로선생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 만일 인생 50고비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과 같이신 위대한 령도자를 만나뵈옵지 못했다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복락을 누릴수 있었겠는가.

김일성장군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어버이이시고 새 삶을 주신 인인이시며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신 유일무이한 스승이시다.

강산이 열백번 변한다한들

내 어찌 장군님의 그 은혜를 잊을수 있으랴. ...》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상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도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선전하는데도 앞장서셨다.

조선해방전쟁의 전란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탈출하신 연포리주막집에 대한 화제를 꺼낸 일이 있었다.

그날 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 강제로는 어느 길에 연포리에서 김형직선생님이 탈출한 주막집을 직접 돌아보았는다고 집이 그날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후대들이 선열들의 투쟁적사를 모르면 후대자들이 되는 법인데 일군들이 진통교양을 잘하는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였다.

그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나도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이 땅을 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선렬들

의 령훈이 우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고 절규하는것 같아서 뜨거운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이 다 망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리에 대한 리극로선생의 이야기 나이에 힘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을 반대하고 모국어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신 그에게 조선어문연구사업도 맡겨주시었다.

조선어문연구사업은 그가 큰 포부를 안고 수십년간 심혈을 고스란히 바쳐온 전공분야였으며 그에게 있어서 청운의 꿈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극로선생의 이렇듯 소중한 포부 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은 조선어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그 우수성을 옹호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나

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금 우리 나라에 독특한 《조선어사전》이 없다고, 조선어문연구회에서는 앞으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었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선생은 편집집단과 함께 《조선어문법》편찬을 끝내고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을 다그쳤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어사전》원고들을 안전하게 운반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리극로선생을 몸가짜이 부르시어 원고인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그가 조선어문연구사업에서 성파를 거두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전쟁의 포성이 울부짖던 준엄한 나날에 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후보원사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고 조선어문학연구소 소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었다.

민족어 연구사업에 심혈을 바쳐가는 리극로선생의 마음을 더없이 귀중히 여겨주신분



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80고령에 집필완성한 논문집 《조선어조연구》! 이는 망국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치던 그대로부터 조선어연구에 뜻을 두고 한생을 민족어연구에 바친은 로학자의 삶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든번 째 생일을 맞은 해에 선생에게 공화국원사의 칭호와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사업에서 리극로선생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기대를 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성업에 한몸바칠 맹세를 지켜 전후시기와 60년대, 70년대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썼다.

정녕 리극로선생이 공화국 초대내각의 상으로부터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등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여온 전 과정은 한 평범한 민주인사에게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은정의 서사시로 통일전선운동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세월이 흘러 선생의 자식들도, 그와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학계의 친지들과 그의 제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인 주체 82(1993)년에 리극로선생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여 《최근 새롭게 밝혀진 조선어학회의 성격과 그 반일애국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토론회를 조직하여 그의 공적을 길이 전하도록 하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그해 2월 어느날 리극로선생의 자녀들의 사업과 생활정

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리극로선생은 생전에 일을 많이 한분이라고, 선생의 이름은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과 조선어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그를 뜨겁게 회고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리극로선생이 미처 못다한 일들과 자식들이 해야 한다고 하시며 모두가 조국의 통일과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살펴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었다.

본사기자

전쟁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녘민심의 목소리

—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 활발히 전개 —

남조선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완화와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에 발족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소식을 전하였다.

회견에서 그들은 《68년전 오늘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민들의 움직임에 각국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과 대화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한국과 미국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7대 종교단체와 4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은 그간 1억명당성을 목표로 조선반도평화선언서명을 진행하여왔으며 서명운동에는 전 세계적으로 8만여명이 참여하

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같은 날 남조선언론 《CBS》도 《한국의YMCA전국연맹》이 조선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두바퀴로 그리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진행한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조선의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18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모두 727km를 달렸다고 한다.

《두바퀴로 그리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자전거종주운동》으로 조

수많은 리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68년이나 지속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진정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7월 27일 논평을 발표하여 립박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서로를 적대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남조선에서 얼마전 이진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입당한데 대해 정치분석가들은 추가속속들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공세와 지지탈락으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라고 평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보려고 《국민의 힘》에 기신기신 기어들어간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두고 지금 정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중이 무서워 정치행보를 운운하다가 지지탈락하러 손을 든것》, 《《국민의 힘》의 우상빌에 숨어든 겁먹은 배신자》, 《검찰총장직설의 수사가 본인의 정치를 위한것이였음을 립증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여당의 한 인물은 《윤석열이 《국민의 힘》도 받아들 수 있는 위인적처럼 온갖 허위과장과 광고를 일



보수야당의 비풀어진 여성관

얼마전 남조선언론 《파이낸셜뉴스》는 《국민의 힘》이 여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있는데 대한 기사를 실었다.

《한쪽편에서 서면 그쪽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수 있지만 정에서 편향하여 위험한 리유이다. 《국민의 힘》의 여성지지가 빠르게 떨어지고있다. 지난해 4.7보선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던 여성지지율이 지난 달부터 확연한 약세를 보이고있다.》

지난 4월 2%에 불과했던 양당의 여성지지를 격차는 지난해말 12%로 커진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는 20, 3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국민의 힘》 대표와 당차원의 대응전략이 틀려온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바로 그들의 남성주의관, 여성차별관이 초래한것이다. 《국민의 힘》후보들이 류승민과 하태경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 힘》 대표는 이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왔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한다는 리유만 들어보아도 그들의 여성관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잘 알수 있다. 《국민의 힘》의 여성관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직장내

차별은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COVID-19》를 막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 《실업대란》을 해소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도 다 없어야 하

지 않는가고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이 들고일어났다고 한다. 도교육청에서 메달을 획득한 여성선수에 대해 인터넷에서 여성혐오적인 말들이 무성했는데 그뒤에는 《국민의 힘》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최근 《국민의 힘》에 입당한 윤석열의 발언도 여성들의 반감을 샀다고 한다. 입당후 가진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친의용호》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남녀사이의 건강한 교제를 정상적으로 막고있기때문이라는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보내바와 같이 《국민의 힘》의 여성관은 여성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 편견과 중요

로 일관되어있다.

원체 《성녀리당》, 《성추행당》, 《색정당》 등의 옴으로 불리워왔고 성추행, 성폭행경력이 있는자들의 서식지인 《국민의 힘》이코보면 그리 놀랄것도 없다.

여성기자, 여성정대원, 여성 《국회》의원 등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로나 시간외 관계없이 성폭력을 일삼는자들이 아닌가.

이전 보수 《정권》의 집권자 리명박도 언론사 리정국장앞에서 외국의 유명업소에 드나들던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좋은 《마싸지》를 고르는 방법도 《인생의 지혜》라는 상스러운 말을 공공연히 하여 비난을 받은적이 있다.

지금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들중에는 18살에 벌써 《태지발정제》론란을 일으키고 《밤에만 쓰는것이 너의 용도》, 《설정이 등집안일은 너가 하는 일》 등 여성천시, 비하 발언을 거러낌없이 한 후보들도 있다.

하긴 《국민의 힘》것들이야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 설치류로나 여기는것들이니 그들에게서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기대할바에는 오물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거라 바라는편이 더 나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신조어를 통해 본 사회의 미래상

최근년간 남조선의 청년들속에서는 수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유행되고있고 쓸쓸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있다.

그러면 그 신조어들을 놓고 남조선의 젊은 세대들의 세태를 투시해보고 하자.

현재 남조선에 있는 대학들에서 1년동안 등록금으로 모아들이는 돈은 12조 5 000억 원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친 등록금》때문에 청년들은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실사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하여 대학을 《실업자양성소》, 졸업생들은 《백수군단》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토록 어렵다는 취업문제를 놓고 걱정을 구했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앞날은 불투명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학대하는 신조어들이 줄줄이 나오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잡지 《신동아》는 《월급이 들어오지

한주일만에 다 빠져나갔다. 역시 (나레기(나는 쓰레기))는 《노답(답이 없다)》이다. 어차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인질...》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한편 친정부지로 뛰어들어 집값과 전세도 새로운 날말들을 속출하고있다.

집값이 뛰어들라 빈곤해진 무주택자들을 칭하는 《벼락거지》,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는 《문지마계약》, 전세부담이 커져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집으로 들어가는 《강가루족》...

하기에 남조선청년들은 《명골(명혼까지 끌어모은다)》해도 집을 살수 없는 《협생(협소스러운 인생)》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이미 이전 보수 《정권》시 리엔,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태어나고 그 《3포》가 내 집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로,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로, 언제 부러인가는 무엇이든 다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말

이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지고있다.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혐오스러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좌절감으로 몸부림치고있을 때 다름속에서는 극소수의 특권층자들이 향락에 빠져있어 사회적인 울분을 더해주고있다.

이것 또한 남조선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신조어 《흙수저》와 《금수저》를 낱게 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어 한 잡지는 이렇게 밝혔다.

...《N포세대》는 이제 나는 무슨 수저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의 자산이 나의 현재를 만들고 그 자산의 상속으로써만 미래를 그릴수 있다. 그것은 수저론, 신계금수저론이다. 《금, 은, 동수저》이며 누구는 《흙수저》이다. 그사이에 《수저수저》, 《블수강수저》 등의 또 다른 등급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금수저》우에 《다이아몬드수저》도 출현한

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는 《헬조선》, 그리고 이 지옥을 탈출해야만 한다는 《탈조선》이 유행한다. ...

여기서 보는 《헬조선》, 《탈조선》, 《수저계급론》은 지금도 남조선사회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신조어이다. 최근에는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어려움과 사회적격리감으로 《코로나우울》이라는 낱말이 생겨나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와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신조어들이 불평등과 부정적 행태를 상징하는 남조선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을 엿볼수 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남조선에서 얼마전 이진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입당한데 대해 정치분석가들은 추가속속들의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공세와 지지탈락으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라고 평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보려고 《국민의 힘》에 기신기신 기어들어간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두고 지금 정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중이 무서워 정치행보를 운운하다가 지지탈락하러 손을 든것》, 《《국민의 힘》의 우상빌에 숨어든 겁먹은 배신자》, 《검찰총장직설의 수사가 본인의 정치를 위한것이였음을 립증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여당의 한 인물은 《윤석열이 《국민의 힘》도 받아들 수 있는 위인적처럼 온갖 허위과장과 광고를 일

삼다가 알파한 내용과 밀착이 다 드러나니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고져 《국민의 힘》의 그늘로 쫓기듯 도망친것이나, 《《한반도 살려달라》는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라고 질타했다.

한 정계인물도 《11월입당을 훌러미 간보기에 열중

비난받는 정치초년생

일단 당안에 들어왔으니 마음먹은대로 검증의 칼날을 휘둘러수 있기때문이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치권분자들이 윤석열이 《국민의 힘》입당으로 보수야당안에서 《대통령》선거준비를 해후보들의 거센 공세를 극복해야 하는 난문제를 떠안

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견제에 더 심해질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윤석열은 비문화적인 처신과 정치문화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 망신만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방류금지, 《주120시간로동제》 실시 등을 비롯한 망언으로 《무지몽매한 윤석열》, 《사람잡는 후보》라고 략인이 찍힌 윤석열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

입당한 후에도 윤석열은 여성친의용호가 저출산을 초래하는듯이 횡설수설하고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은 불쌍식품이라도 먹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소득층을 무시하는 망발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오죽하면 각계층속에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에게 말실수를 하지 않게 입막을 해주라고 야유, 조소하고 있었는가.

한때 윤석열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피혁을 들추어내어 구속하였었다.

그러나 권력악용실현을 위해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국민의 힘》에 기어들어감으로써 사람들로부러 배신자, 바보짓만 일삼는 정치초년생으로 비난받고있다.

배신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법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제대적은 제가 받는다

얼마전 도이쉴란드에서는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는 수백만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빚을 졌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준 많은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쇼도이쉴란드가 감행한 범죄에 대해 세기를 이어반성하는 도이쉴란드의 진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실이다.

같은 시각 동방의 전범국 일본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울려나왔는가.

《유네스코는 사실에 반대되는 결의 철회해야》,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트립》,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상을 떨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작》...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조선인강제로동력사를 세계가 알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도 하지마(일명 군함도)란광 강제징용력사를 외면하여 전시해탈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자기 할바를 바로라도 요구하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한 구유언론의 반발이다.

일본당국도 결정문이 채택되자 《지금까지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리행해왔다》, 《결정문기술에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두들겨팼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악착하게 짜낸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범죄력사를 세계에 가리우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하시마란광이 그 령악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조선인로동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살인적인 로동강요와 극심한 민족차별로 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민과 일본인들속에서 지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2015년에 하시마섬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당국으로부터 《조선인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아냈는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해 약속을 리행한다면서 도피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오히려 《조선인정용자들은 거짓》이라는 허위 증언들을 위주로 전시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성실하게 리행해왔다》고 두들겨팼고있으니 낮가죽이 소발통같다는 말도 무색할 정도이다.

문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으로 높아대는 일본의 파렴치성이 하시마란광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아시아지역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침략의 력사를 《유럽인들로부터 아시아인들을 지키기 위한 해방전쟁》이라고 우기고 20년간의 조선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독재행의 반민법죄도 《매춘부》들의 소행이라는 꾀변으로 합리화하는것이 바로 낮가죽 두꺼운 일본이다.

일본이 아니다.

력사의 죄악에 대한 사회와 배상은 고사하고 침략의 상징이거 아시안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전범기 《옥일기》를 도쿄올림픽대회에 사용하겠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까지 저들의 령토라고 우기는 《방위백서》와 지도를 마구 조작하여 우리 민족과 세인들의 치솟는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는것도 바로 일본이다.

에로부터 제대적은 제가 받는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반세기나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이 유엔무대에서 전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경제동물》, 《정치난쟁이》로 비난을 받고있는것은 그들스스로가 빚어낸 결과이다.

오만성과 파렴치성으로 력사외곡과 과거죄악에 대한 참미, 평화에호인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제침책동은 계속 매달리는 일본에 차례질것이란 세계적인 규탄과 령대뿐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알다투어 사죄했다. 정치인들은 죄다 인터넷에 (미안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월 2일 《SBS》(《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해 10월에 일어났던 서울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된 생후 16개월 유아의 참혹한 삶과 죽음. 국민은 분노했다. 방송적여론은 들끓었고 국회도 여론을 의식한듯 방송 일주일만에 아동학대판

《다시 미안해하라》

런범안만 수십건을 쏟아냈다. 어린이집과 립근 소아과에서 무려 세차례나 아동학대의실거를 했으나 아동보호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을 폭력의 소굴로 빈빈이 되돌려보냈다. 처벌강화만으로 재발방지할수 없다는 사실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지만 일주일만에 만들어진 졸속법안들은 사건의 본질을 피했다. 다행히 지난 2월 5일 아동학대문제를 파고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요구해온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됐고 진상조사자 이루어지는 듯 했다.

시간이 지나 4.7보선선거가 도래하자 정치권은 급속히 냉각했다. 국회가 망각한 사실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됐지만 고인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서인지 국민적공분이 일지도 않았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다.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제 아니다. 법안을 폐기하더라도 무려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라면 심의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아동학대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사람으로서 반대리유를 알아야 할변을 하든 납득하든 할게 아닌가.

그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던 정치인들, 법안심사안하는것도 미안해하라.》

(남조선잡지 《주간경향》 2021년 7월 19일호에서 전재)

온 나라에 소문난 자력생생모범관외

—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을 찾아서 —



재자연화이찬데 애덕이다

— 리문기 공장장과 나눈 대담 —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지합과 종이제품들이 그 질이 좋은 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공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료, 자재의 재자연화 사업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얼마전 공장을 찾은 우리는 리문기 공장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각지에서 재자연화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속에 공장에서 재자연화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리문기: 우리는 공장이 세워진 때로부터 재자연화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향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그 어떤 경제과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자연화사업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파지 확보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평양시수매일용기관들과의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파지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평성, 원산, 사리원을 비롯한 각 지방들에 나가 파지를 구입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는 파지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기자: 공장에서 재자연화사업이 잘되어나가고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리문기: 공장의 종업원들 누구나 재자연화사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재자연화사업을 실무적인 사업으로 가 아니라 공장의 운명, 자기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파지 1t에서 얼마만큼의 지합과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알려주면서 재자연화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해 깊이있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모두가 수매원이 되고 유류자재수집가가 되어 재자연화실현을 위해 애쓰니 많은 생산장성의 예비가 나오고 자재가 절약되었다.

자력갱생도 재자연화도 모든지 종업원들의 애국심이 달려있다. 재자연화자본 애국이라는 관점을 새겨안은 우리 종업원들은 생활과정에서 나오는 파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 재자연화에 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는 재자연화사업에서 과학기술에 큰 힘을 넣고 있다. 파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지를 선별하여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원심선별기, 진동채선별기, 모래채선별기와 같은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제작완성하여 파지속에 들어있는 각종 오물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설비 공장의 실정에 맞는 설비들은 수입산 설비에 못지않다.

기자: 듣고보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애국심을 지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문기: 크든작든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자기 기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도 나오고 재자연화실현을 위한 경영전략과 생산장성의 묘술도 나온다

본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길만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고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제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재자연화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겠다.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탄복한 것은 비단 재자연화성과만이 아니었다.

닭사와 오리사, 메추리사, 평사, 돼지복장, 온실, 버섯재배장을 비롯하여 튼튼히 꾸러진 공장의 후방토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게 했다.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갖추어놓은 후방기지에서 생산한 많은 량의 고기와 알, 남새와 과일 등을 정상적으로 종업원들에게 공급해주니 누구나 좋아한다. 공장 일군의 자랑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닭공장장을 방불케 하는 닭사였다.



일터에 넘치는

조화롭게 들어앉은 생산건물들이며 파아란 잔디밭,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와 같은 과일나무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활짝 웃는 아름다운 꽃들. 그런가 하면 건물벽에 특색있게 지은 알록달록한 비둘기장이며 기묘묘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인공절벽, 실물을 방불케 하는 학과 소나무조각...

이곳 문화인쇄공장 락랑분공장을 돌아보느라니 공원속의 공장, 잘 꾸러진 휴양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공장구내의 여러곳에 꾸러진 정각모양의 휴식터들에서는 종업원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공장안을 공전과 같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훌륭히 변모시키고 높은 생산

준비하게 늘어난 닭장들사이로 오가며 종업원들이 한창 먹이를 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문신혁작업반장은 1700여마리의 닭을 기르고있는 하루에 1000여알의 닭알을 생산한다고 말

잘사는 공장, 흥하는 공장

하였다. 이들은 인공부화기로 필요한 닭종자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었다.

많은 닭들을 기르는 조건에서 먹이보장이 험치 않았다는 우리들에게 형광종업원은 《비알곡먹이비율을 30% 이상 보장하는 것과 함께 번식속도가 빠르고 단백질함량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장봉익 작업반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구호가 아니며 연혁소개실에 써 붙이는 간판이 아니라, 김정일애국주의는 이 땅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품어안고 자기의 구슬땀과 지성을 다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느라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구내에 잔디와 꽃과 나무들을 심어가

이 높은 생물먹이인 뽕물등에의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원가로 닭, 오리, 메추리, 평의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리사와 메추리사

를 지나 돼지종축장에 이르러 종축돼지들이 한가로이 누워 잠자고있는 것이 보였다. 공장에서는 우량종축 돼지들을 확보해놓고 새끼돼지들을 많이 많이 번식되기를 기르고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고기량이 적지 않다



공장에

꾸고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로동자들 누구나 공장의 생산환경, 생활환경이 잘 꾸러져 일터에 정이 푹 들었다고, 그리고 공장일군들이 종업원들의 생활

을 따듯이 돌봐주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흥겨운지 모르겠다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꽃피워가는 자들의 일터에 대

어느것 하나 무시하지 않을 수 없고 쉽게 스쳐지날수 없는 것들을 지나 건물옥상에 오르면 이번에는 푸르싱싱한 남새들이 키돋움하며 자라는 온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금 온실에서 배추와 무

식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있다는 그의 말에는 일터에 대한 보람과 긍지가 함뿍 어려 있었다.

자랑은 이뿐이 아니었다. 드넓은 버섯재배장에서 돌버섯, 곤봉버섯, 느라리버섯, 털검정버섯, 팽나무버섯 등이 자라고있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 했다. 우리와 만난 리은주종업원은 버섯재배장을 꾸리고 버섯을 재배하던 날날을 더듬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고 부족함이 적지 않았지



만 우리 공장살림살이는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자력갱생의 생활력이 속속들이 파시되고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체의 힘으로 단위발전의 길을 개척해가는 긍지높은 추억담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취재절이었다.

자체의 힘으로 종업원들에게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사는 공장, 흥하는 공장의 더 좋아질 래일을 호뜻하게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흥범 식



《다 고마운 제도의 덕이지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은 인류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다. 오랜 공화국인민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누구나 무병무탈하여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 있다. 얼마전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서 살고있는 신장렬 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 하였다. 당당의 박용명의 말에 의하면 현재 로인의 생명지표는 정상이며 질병이 없다



공용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할머니는 정권기관 일군들과 당당사들, 아바트주민들의 세심한 관심속에 아직도 일손을 놓지 않고 집안일을 하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해방전 빈동의 가정에서 태어나 피눈물속에 살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할머니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왔다. 신장렬 할머니는 《자식들을 잘 키

우려던 나의 꿈은 실현되었다. 내가 장수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한 것은 다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덕이지요. 사회주의제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자식들을 이렇듯 훌륭히 내세우며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고 말했다. 그의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회담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특히 할머니의 말자들은 만수대창작사에서 수십년간 조각가로 활약한 공훈예술가이다. 창작활동기간에 만수대대기념비, 삼지연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대성산혁명렬사 등을 나라의 곳곳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하게 일떠세우는데서 공로를 세웠다. 딸 아들 김익선은 나와 동

생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나의 재능은 꽃피고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들에게 일을 잘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인민 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번재 생일을 맞이한 신장렬 할머니에게 온정어린 생일상을 보내 주시었다. 할머니는 사회주의제도에 자부심을 받는 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온정어린 생일상까지 받아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늘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

었다. 신장렬 할머니의 가족, 친척들은 나라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마운 제도를 위해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림광 훈

평양의 거리들에 증설된 강서약수매대 봉사자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의 봉화거리 강서약수매대의 김일숙 판매원은 요즘은 다른 유료매대들보다 약수매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평양시안의 백화점들에도 강서약수매대가 있고 식료품상점들에서도 약수를 살 수 있는데 시민들은 길을 가다가도 마실 수 있는 약수매대들이 늘어나 좋아하고 있다. 강서약수는 평양시에서 서쪽으로 약 30km되는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솟아나는 천연염류이다. 약산성인 강서약수는 위분비정상화, 장관의 운동, 흡수촉진, 리담, 리노, 대사촉진, 조절작용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

장개양, 위수술후유증, 만성소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 강서약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이 인정된 보기 드문 천연탄산광천수인것으로 하여 1982년에 천연기념물 국가지정 제56호로 등록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등록증서와 품질인증서, 세계적소유권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명등록증서를 받았다. 강서약수공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약수생산지이다. 여기서 예로부터 그 맛과 약효가 비할바없이 뛰어나 조신의 특산물이라 부르는 강서약수가 자동화, 흐름선화 된 생산공정을 거쳐 깨끗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제에게 짓밟혔던 조국강산에 해방의 봄빛을 뿌려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강서약수를 근로하는 인민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리용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경치좋은 강서약수에 인민을 위한 료양소를 건설하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어머니수령님의 사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제인 강서약수의 샘줄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린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령도로 원래보다 용출량이 많고 질도 높은 약수를 다시 찾아주시었다. 강서약수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뿐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은정의 손길도 깃들여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공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약수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약수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강서약수는 좋은 맛과 질로 하여 국내외의 여러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평양의 자랑 련광정

평양의 풍치 좋은 대동강기슭에는 예로부터 주변경치가 하도 좋아 평양의 자랑으로, 판서8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련광정이 있다.

대동문을 내린 우리는 리일심연구사와 함께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련광정에 이르렀다.

《련광정은 대동강기슭으로 속 내린 덕바위를 지반으로 하여 한채, 옆에 있는 절벽에 딱 붙어 한채 이렇게 크기와 높이가 다른 합

각지분을 서로 직각으로 맞물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건물은 련결부위를 재치있게 해결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배치하였습니다.》

리일심연구사가 하는 말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련광의 자취가 비긴 련광정을 돌아보았다.

고구려시건인 6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세운 련광정은 당시 평양성의 내성을 쌓으면서 동쪽장대 즉 군사지휘처로 세운 루정이었다고 한다.

그후 1111년에

지금의 자리에 다시 루정을 세우고 《산수정》이라고 했으며 1670년에 다시 짓고 《련광정》이라고 불렀다.

련광정에서는 각이한 년대의 글이 새겨진 기와가 20여 개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련광정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치가 마치 한쪽의 산수화 같아서 예로부터 《제일루대》, 《만화루》 등으로 불려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옛시와 현판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서 리일심연구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려시대에 김황원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까. 김황원은 부벼루에 올라시를 짓다가 평양의 절경을 노래하기에는 자기의 시작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습니다. 김황원은 시를 마감짓지 못한채 붓을 꺾고 통곡을 하였는데 그때 못다 쓴 그의 시가 기둥에 새겨져있습니다.》

이 리일심연구사는 옛날 조선에 왔던 이웃나라 사신

이 련광정에 올라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다가 너무나도 황홀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남긴 일화도 들려주었다.

그때 이웃나라 사신은 수많은 고장을 돌아보았지만 이렇듯 아름다운 경치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루정에 걸어서 바라보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련광정에서 주변의 풍치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주체사상탑과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보링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창천거리...

정말이지 련광정에서 바라보는 평양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그 이웃나라 사신이 오늘 다시 련광정에 올라 풍치수려한 평양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무슨 글을 또 남겼을까.

본사기자 리철민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물에 뛰어들기 선수권보유자 김국향

4.25체육단의 김국향선수는 어린 나이에 세계선수권을 쟁취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는 체육인이다.

그는 2015년에 이어 2017년에 두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입수물잠기가 천성적으로 좋은 그는 물에뛰어들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1년후부터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처음으로 출전한 국

제경기인 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관 개인경기에서 단연 1위를 쟁취하여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후 진행된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세계적인 강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2017년에 김국향선수는 제17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관 동시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대회는 제17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때로부터 불과 20일후에

시작된것으로 하여 그에게 가해진 정신육체적부담과 심리적압박감은 매우 컸다.

그러나 그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모든 동작들을 최대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수행하였으며 그야말로 흠잡을데 없는 입수동작으로 관중들을 경탄시켰다.

이 경기대회에서 그는 우승후보자로 주목되었던 선수들을 누르고 여자 10m고정관 개인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혼성 10m고정관 동시경기, 여자단체경기에서도 우승하여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김국향선수는 김정일청년 영예상수상자, 인민체육인이다.

본사기자



앞날의 인재들이 자란다

공화국의 창광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알뜰히 돌보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우선 어린이들에게 과학상식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한 만화영화 비슷한 100편의 작품을 만들것을 계획하고 이미 연출대본을 완성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 모든 반들에서 청음 및 시청교육을 잘하고 악기타르기, 노래부르기 등을 정상화하게 하여 아이들이 예술적기량과 정서를 풍부하게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외국어교육도 적극 장려하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컴퓨터교육도 힘있게 내밀어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의 열기, 단기로부터 시작하여 선택하기 등에 대해서도 배워주고 기능개발 다매체전집물 《꽃보리》

에 들어있는 1 800개의 문제를 풀기, 선택하기, 맞추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컴퓨터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그림그리기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로보트 교육의 성과정보장을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유능한 고인원의 강의를 조직하여 교양원들이 로보트에 대

한 일반적인 리해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8점의 교육용로보트를 자체로 제작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그리고 로보트교육에 절실히 필요한 전집물도 마련해 놓았다.

오늘 창광유치원의 교육수준은 더욱 개선되고 교육범위가 넓어지고있으며 학부형들과 교육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성을 내면 건강에 해롭다

성을 내는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가 10분동안 성을 내면 3km를 달린것과 맞먹는 정력이 소모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을 내면 혈

압이 오르고 혈관이 심하게 수축되어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한 경우 이그리지며 로인들속에서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수 있다.

또한 호흡이 가빠지고 폐포가 계속 확장되기때문에 폐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게 되며 오래동안 성난 상태에 있으면 내분비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보다 쉽게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성을 참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사기자

국가비밀질문화유산

고려약음식료법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몸단련과 식사섭생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장수로법을 장려하였다.

국가비밀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려약음식료법은 고려약재와 여러가지 음식감을 잘 배합하여 만든 음식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병을 예방치료하는 고려의학적치료법의 하나이다.

이 료법에서 중요한것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목적, 체질에 따라 고려약음식을 잘 선택하는것과 함께 먹는 기간과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하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봄철에는 입맛을 돋우고 몸의 저항력을 높이도록 하며 특히 간을 보호할수 있는 미나리, 더덕, 두릅, 푸조, 시금치 등을,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부당을 제일 많이 받는 심장을 보호할수 있는 인삼, 단고기, 료두 등

을 먹어야 한다.

가을철에는 호흡기를 든든하게 할수 있는 마, 오미자, 구기자, 홍당무, 푸조가 좋으며 겨울철에는 신을 보하는 마른 버섯, 다시마, 토끼고기, 오리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것이 좋다.

대표적인 고려약음식으로

공죽, 료두죽, 국(단고기국, 가물치국), 탕(추어탕, 송어탕, 삼계탕), 품(인삼담, 토끼담, 잉어담), 옛(대추엿, 밤엿, 깨엿, 잣엿, 호두엿), 차(오미자차, 인삼차, 들쭉차, 구기자차, 솔잎차, 감나무잎차) 등을 들수 있다.

본사기자



8월의 절기와 민속

8월의 절기에는 8월의 절기에는 어계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가을이 시작한다는 뜻이며 처서는 여름더위가 차서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찌는듯한 무더위가 가세지기 시작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농작물 등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들피잡이를 하거나 새나짐승의 피해를 막으며 다음해농사를 위해 풀베기도 진행하였다.

특히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김장용남새를 심고 가꾸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민속무용과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본사기자

대표적인 춤으로서는 어계춤과 손뼉춤, 두레놀이복춤이며 민속놀이로는 진놀이와 기마전놀이로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었다.

진놀이는 상대편의 진을 어느 편이 먼저 점령하는가를 겨루는 놀이이고 기마전놀이는 기마수로 선정된 한명의 아이를 여러명의 아이들이 받쳐올리고 상대편의 기마수를 공격하는 놀이로서 아이들속에서 즐겨 벌어졌다.

우리 선조들은 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식생활을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수단은 찹쌀 또는 백미, 찰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발알만 하게 빚어 삶는물에 삶아 건져 찬물에 씻은 다음 물기를 없애고 꿀이나 오미자물에 담그어먹는 음식이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이며 처서는 8월 23일이다.

본사기자

사랑하노라 (2)

글 럼 예 성, 그림 김윤 일

김정인, 대학시절의 그는 너무나도 수수하고 평범한 청년이었다.

나는 학급의 유일한 처녀 대학생이었고 그는 학급의 많은 남학생들중의 한명이였다.

집은 부청에 있어서 기속 사생활을 했다.

처음에 나는 어리숙해보이는 이 농민출신의 대학생을 약간 깔보았던것 같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소학교시절부터 습관되고 공인된 나의 1등꿈을 깨뜨린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의 자존심에 끊임없이 상처를 입힌 우리의 경쟁은 대학입학 한달만에 진행된 첫 물리학과경연결과를 발표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틀림없는 1등을 확신하며 나는 전체 학생들과 함께 대학강당의자에 자신만만하게 앉고있었다.

그러나 몇분후에 나를 깜짝 놀래우는 일이 일어났다. 《1등, 김정인동무!》 하는 부름이 장내를 뒤흔들었던것이다.

몸에 불지 않아보이는 대학교육을 받은 키가 크고 휘천기림듯 약한 체질의 청년이 주석단으로 올라갈 때 나는 그가 우리 학급의 제일 매력없는 청년임을 알아보았다. 술한 대학생들의 물결속

에 섞이우면 전혀 눈에 띄우지 않는 수수한 사람, 입학해서 한달동안 말도 없이 조용히 한쪽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던 사람이였다. 그런 사람이 나를 압도하더니?

《농장원이였다. 3년씩이나 농장생활을 하다가 왔다는데 머리가 좋은 모양이지?》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나는 아예 입을 열어 개를 못했다.

《2등, 홍유정동무! 홍유정동무!》 나를 찾는 소리가 여러번이나 울렸으나 나는 끝내 연락 없었으므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4.98이라는 점수가 띄어지니 시험지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학교경연은 한달에 한번씩 진행되었다.

참기 힘든 한달이 지나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였다.

드디어 다음번 수학학과 경연에서는 내가 1등을 하였다.

나는 머리를 쳐들고 당당히 주석단으로 올라갔다.

2등을 한 김정인은 어쨌든 미소를 그리며 눈두덩이를 걷듯 그렇게 주의깊게 걸어와 내옆에 섰다.

그리고는 나직이 속삭였다.

《축하합니다, 유정동무.》 나는 그만 약이 팍 올라서 얼굴이 빨개져 달아올랐다.

이것이야말로 전날에 2등을 하고 그 자리를 도피한 나에 대한 말없는 비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나보다 키가 두뼘이나 큰 그 사람과 내놓고 해보지 못하는것이 너무 화가 나서 얼굴만 고추맛으로 빨개졌다.

문제는 그 다음번에 그가 또 1등을 한데 있었다.

내가 1등한 다음이면 무조건 그가 1등을 하고 그가 1등한 다음이면 또 무조건 내가...

마치 어길수 없는 법칙과도 같이 반복되는 이러한 경쟁속에서 우리의 대학생활은 흘러갔다.

그가 1등한 날이면 우리 집 창문에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대학 3학년때 우리 대학에 찾아온 그 유네스코대표단만 아니었다면 우리의 경쟁은 끝이 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고난도급의 수학문제 하나를 제시한 그들은 학급에서 유일하게 정답을 낸 홍유정이가 아니라 전혀 처음 보는 문제풀이방식을 정립한 김정인을 선택하였던것이다.

동무들이 류학을 떠나는

그를 바래줄 때 나는 후출근해보이는 그의 옷차림과 흥분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지켜보며 한쪽구석에 조용히 서있었다.

끝내 그를 이기지 못했다 는 아쉬움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아르게 응어러지고 있었다.

동무들과의 다정한 작별 인사말에 내앞에 멈춰선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싶은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

나는 묵묵히 구내길을 걸었다.

가방안에 우산이 있었지만 꺼내들고싶지 않았다.

비를 맞고싶었다. 폭우가 쏟아졌으면, 더 비발이 세차졌으면...

그래서 힘들고 피로운 나의 마음에 청신하고 따뜻한 안정이 깃들게 할수는 없을가?

연록색의 양복이 비에 축축히 젖어들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파났다.

류학을 갔다오고 외국문을 먹고오면 외국것만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때문에 가슴아프게도 내 나라의 것이 무시당하고있다. 그로록 힘들게 창조해낸 내 나라의것이!

나는 입술을 꼭 다문채 우산밖으로 한걸음 비켜섰다.

실사 뼈속까지 젖어든데도 이 홍유정이 동무의 우산밑에 있는 비를 갖지 않을거예요. ...

그의 놀란 눈길을 잔등에 받으며 나는 콧물이 떨어졌다.

2

다음날 아침 나는 3일동안의 휴가를 신청하였다.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무엇인가 사색하고있던 새 실장이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그의 컴퓨터에는 《수리를 유탁방수역과 그 세계적인 추세》라는 소문문이 현시되어있었다.

파마약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볼줄 알았는데 뜻밖이었다.

남의 피라는 탐구의 결정체는 무참히 부정해치우고 자기는 무엇인가 다른것을 연구한다는것인가?

여전히 은근히 풍겨오는 향수냄새...

나는 창가로 머리를 돌렸다. 그를 마주보고싶지 않았다. 《휴가가 끝나면 실원에 착수할수 있겠소?》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 물론입니다.》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의 침묵을 끝내 깨뜨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그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나의 앞에 나타났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또 그때처럼 내 인생의 자부심을 무너트려버...

언젠가부터 비가 내리고있었다.

문득 커다란 우산이 머리우를 가리었다.

그 사람이였다.

까맣고 탄탄한 방수친의 우산을 펼쳐는 김정인은 어색함과 믿음함과 여러가지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에게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겨오고있었다. 대학시절에는 전혀 느낄수 없었던 아련한 냄새가...

우산상표에 눈길이 가져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부채

무더운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가시는데 부채를 리용하고있다.

사람들이 바람을 일구는 생활용구인 여러가지 부채들을 널리 리용하고있는것은 오랜 역사적과정을 거쳐 내려오는 민속의 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이 부채를 만들어 쓴 역사는 오래다.

력사유적과 옛 문헌자료들에 의하면 부채는 고구려시기에 널리 퍼졌다.

황해남도 안악군에 있는 고국원왕릉(4세기 중엽의 고구려비화무덤)의 벽화에 부채가 그려져있다.

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채제작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부채의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였으며 종류도 형식과

재료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 용도도 단지 바람을 일으키는때뿐아니라 여러가지 목적에 쓰였다.

해벌을 가리우는 부채, 권세있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부채, 의식을 하는데 쓰이는 부채 등 각양각색이었다. 고려시기의 접는 부채는 만드는 솜씨도 정교하고 장식도 훌륭했으므로 하여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부채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만드는 수법도 발전하였다.

조선부채는 형태의 선이 부드럽고 색깔과 무늬가 아름답고 고상한것이 특징이다.

본사기자

남편의 안해 두돈

말이 아버지의 그릇에는 떡을 다섯개 놓아주고 자기 남편의 그릇에는 일곱개를 담아주었다.

남편: 《그 떡 참 먹음직스럽다. 내 떡이 많은지 아버님 떡이 적은지 한번씩 물어볼까? 이크, 아버님 떡은 다섯개이고 내 떡은 일곱개군.》

그러자 딸의 아버지는 쓴 입만 다시였다.

그날 밤이었다.

안해: 《제가 랑군님이 귀하여 떡을 더 놓아주었는데 어찌 그걸 밝혀 부모님앞에서 망신시킨 말이에요?》

남편: 《임자말이 정말 옳네그려. 내가 매일 일자를 위해 다시 말을 하지.》

이튿날 아침 남편은 잠을 깨기 바쁘게 장인의 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말하였다.

《어제 저녁 제가 먹은 떡은 분명 다섯개였습니다.》